

退溪歌辭의 思想性 考察

—特히 道德歌辭類를 中心하여—

金 基 阜

<目 次>

I. 序 論	1. 整齊嚴肅·孔夫子 謄理歌
II. 退溪의 儒學	2. 主一無適·相杵歌
1. 16C의 性理學	3. 積久漸熟·孝友歌
2. 理氣哲學과 敬思想	IV. 結 論
III. 退溪歌辭와 居敬窮理	

I. 序 論

여기서 「思想性」이라 함은 一定한 哲學思想을 지니고 있는 意義로서의 文學(詩歌)에 끼친 영향력을 意味한다. 이것은 一定한 哲學思想이 지닐 수 있는 「主體的 自律的」인 사고방식이 갖는 意味를 內包한다. 그러므로 本 考察은 朝鮮의 性理學者 退溪 李滉의 歌辭 作品 속에 在內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을 찾아 내 보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朝鮮朝 性理學과 관련하여 文學思想史 내지 理論的인 연구가 先學들에 의하여 詩歌 및 小說에 이르기까지 광복할만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¹⁾ 아울러 退溪의 文學作品도 時調²⁾와 漢詩³⁾에 대하여 個別的인 研究로 하나의 思想性을 밝히고

1) 趙東一,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 설정, 우리 문학과 만남. (서울:弘盛社, 1978), '理氣哲學의 傳統과 國文學理論의 새로운 方向', 韓國小說의 理論(서울:知識產業社, 1977) 崔珍源, '自然과 人間存在', 韓國思想大系 I(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 朴喆熙, '時調의 構造와 그 背景'(大邱:嶺南大學校 論文集, 1974), 金烈圭, '韓國詩歌의 抒情의 몇局面', 東洋學 2(서울: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2)

2) 趙東一, 製의 책

3) 徐首生, '退溪文學의 研究', 退溪學研究 I (大邱:慶尚北道, 1973)

있으나, 歌辭에 대하여서도 연구 업적이 없지 않으나⁴⁾ 아직도 몇몇 歌辭作品에 대하여 作家의 存疑문제가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⁵⁾ 本考에서는 지금 까지 學界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退溪作品이라고 인정되는 孔夫子闡理歌, 相杵歌, 孝友歌를 가지고 退溪의 새로운 思想性에 照明을 둘려 보려는 것이다. 本考察에 있어서 主體的이고 自律的인 思考의 도출은 어디까지나 聖學(聖王之學)이라 하는 朝鮮朝의 性理學을 바탕으로 하되, 특히 退溪의 儒學思想 속에서 당시 사회 환경과 관련된 思想의 機能이 歌辭作品에 어떻게 表出되는지, 나아가 그것은 어떤 倫理的 德目으로 당시의 現實을 克服하는지 그 의도를 찾아 보려고 한다.

II. 退溪의 儒學

1. 16C의 性理學

16C (1501~1600)는 朝鮮朝의 性理學의 前期로서 四大 士禍로 因한 혼란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16C는 우리 나라 儒學史上 학문적으로 뛰어난 人物들이 生存한 시기로서, 氣一元論을 주장하면서 가장 창의적인 自然哲學者의 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徐敬德 (1489~1546), 그리고 嗣齊思想을 잇는다고 할 수 있는 이론 바「土林五賢」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退溪 李滉 (1501~1570)을 들 수 있고, 뒤이어 退溪와 쌍벽이라고 할 儒學者 粟谷 李珥 (1536~1584)를 손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心性論 研究는 朝鮮前期 性理學의 특색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에서도 李滉의 유학은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그의 영향은 어느 학자보다도 크게 끼쳤었으니 문학(詩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作品이 나온 이 시기의 性理學과 社會相을 미리 파악해 보지 않을 수 없다. 巨視的으로 볼 때 朝鮮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였고 이 때의 士大夫의 時調作品은 文學장르상 대표할만한 것이며 유교적인 理性과 詩調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4)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78), 李相賓,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74), 李家源,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 退溪學研究(서울: 1972)

5) 지금까지 退溪歌辭로 비교적 學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孔夫子闡理歌, 相杵歌, 孝友歌, 琴譜歌 等이며, 邊山別曲, 木童門答歌는 아직 논란이 심하다 (李家源: 앞의 책, 李東英著 '歌辭文學 論政', (大邱: 螢雪出版社, 1977) 참고).

파악되어⁶⁾지겠으나, 16C의 양반가사 문학 또한 무시할 수 없다. 朝鮮朝 前期 士大夫의 詩歌는 性理學을 바탕으로 現實을 극복하여 유교의 절대적인 이념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表現手段으로 삼았다. 이것은 곧 天下의 사물을 나 안의 것으로 自我化하여 物我의 일치, 또는 天人合一에 도달하려는 것으로서, 철학적 탐구, 도덕적 수양의 목표로 삼기 위하여 그 表現手段으로 文學創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 이러한 목표 달성을 조선 전기 사대부의 지상파제이며 중국에 가서는 세계의 자아화를 이루려는 성리학적인 노력의 소산이라 하겠다.

退溪의 경우에도 예의 없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리학을 절대이념으로 한 학문적 이론이나 업적보다도 그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敬으로써 일관된 그의 인간적인 높은 교양을 엿볼 수 있다.

退溪가 탄생한 1501년은 바로 史草問題로 하여 생겨난 戊午士禍가 있은지 3년째 되던 해로서, 16C는 守舊權力層과 新進士林과의 알력에서 일어나는 것은 史禍로 인하여 당시 儒林의 士氣를 쥐어 놓았다. 그러나 士禍의 와중 속에서도 靜庵 趙光祖는 性理學的 敎化에 의하여 實踐的 儒學精神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靜庵은 自身의 個人的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知性을 代辦하는 士林精神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士林 내지 士林精神의 형성은 일찌기 世祖의 王位 찬탈에 반발한 金時習(1435~1493) 등 이론 바 節義派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시 死六臣, 生六臣들의 節義精神으로 이어지고 그 뒤 吉再의 영향을 받은 金宗直(1413~1492) 등을 중심한 영남의 士林이 進出하면서 확고한 士林의 人脈을 이루게 되었다. 靜庵은 바로 中宗時를 장식한 그 脈絡의 主峯人物이다.

그는 反正으로 位에 오른 中宗 밑에서 ‘咸興維新’⁸⁾이라는 정치의 改新을 위해 維新을 강조하면서 民本爲民의 뜻을 지닌 至治主義를 이상으로 삼고 끝까지 道에 의한 政治를 강구하다가 참화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 士禍期의 性理學思想은 다시 花潭 徐敬德(1489~1546)과 晦齊 李彥迪(1491~1553)의 學問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花潭과 晦齊의 思想은 각각 저서를⁹⁾ 通해서 나타나는데 다 같이 理氣說에 依한 宇宙論의 形而上學을 본

6) 朴喆熙, 앞의 논문

7) 趙東一, 앞의 논문 p.167

8) 「靜庵文集」卷 3 參贊官 時啓五條

9) 徐敬德의 著書는 ‘原理氣’, ‘理氣說’, ‘太虛說’, ‘光神死生論’, ‘皇極經世數解’ 등이 있고, 李彥迪의 著書는 ‘大學章句補’, ‘求仁錄’, ‘中庸九經衍義’, 등에 傳

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發見할 수 있다. 花潭의 「太虛說」과 哺齊의 「太極說」이 양인의 哲學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다만 이들은 宇宙論의 탐구에 있어서 宇宙生成始元 및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哺齊의 宇宙論은 程朱系統의 哲學으로서 그에 의하면 우주의 생성은 어디까지나 理와 氣의 핏에 의한 것이며 우주의始元은 理로서의「太極」에 연유한다. 반면 花潭의 우주 생성은 恒存하는 一氣의「聚散·屈伸」에 불과하며 우주의始元 역시「太虛」라는 氣의 無形한 상태에 불과하다 하면서 一氣가 불멸하고 오래 계속이 되면 체가 용이고, 음이 양이고, 虛가 氣인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哺齊와 花潭은 서로 哲學의 軌道와 內容을 달리하여 다른 理論을 전개하지만 理氣說에 의한 우주론적 形而上學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그들은 기성학설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獨自의 立場에서 학문을 연구했다는 점이 똑 같으며 退溪는 哺齊의 「太極說」에 대하여 그의 학문이 蕤蓄과 특색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 이것은 어느 누구의 先賢의 學에 의지하지 않고 獨自의 사색과 학문 태도를 두고 말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은 退溪와 栗谷의 性理學일 것이다. 특히 退溪의 性理學 비중이 더 크다. 退溪는 앞서 말한 靜庵의 士林精神을 계승하고 다시 哺齊의 思想을 그대로 받아서 이 시기에 꽂피웠다고 할 수 있다. 退溪의 사상은 매우 광범하여 여러 각도로 살필 수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高峯 奇大升 (1527~1572)과 나눈 「四端七情論辨」을 들 수 있다. 退溪에 의하면 「四端」과 「七情」의 관계는 곧 「理·氣」의 관계와 같다는데 것이다.¹¹⁾ 따라서 「四端은 理의 發이고 七情은 氣의 發」(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이라 할 수 있다고 退溪는 주장하였다.¹²⁾ 나중에 다시 四端은 「理가 發함에 氣가 따르는 것이고 七情은 氣가 發함에 理가 타는 것」(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이라고 제 二의 해석을 내렸다.¹³⁾

四端은 人間의 본성인 순수한 情에서 나오는 것으로 순수한 本然의 가운데 있는 仁·義·禮·智의 端緒가 되며 體의 본질을 의미하고, 七情은 氣質을 나타내는 人間의 感情에서 나오는 것으로 外物에 易感하여 생동하는 形

하고 있다.

10) 退溪集 卷四九 哺齊李先生行狀

11), 12) 退溪集 卷十八 答奇明彥 論四端七情總論

13) 四端七情의 해석은 退溪와 栗谷 사이에 견해차가 보이매 이들을 따르는 후인들에게 主理派·主氣派의, 혹은 檳南學派·畿湖學派의 형성을 초래케 하였다.

氣이므로 用의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근원이 道心·人心의 二元的으로 性理學에서는 이를 本然之性, 氣質之性으로 나누는데¹⁴⁾ 退溪는 이의 혼동을 특별히 경계하기도 하였다.

理氣哲學의 性質上 자단히 「四端七情論」, 「人心道心說」로 通하여 心性論의 탐구에 의한 가치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의 士林들 사이에도 氣보다 理가 正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에 理發을 주장하는 退溪의 說이 理發를 부인하고 氣發만 주장하는 栗谷의 說보다 正統의 뜻을 지니게 하고 있다.

理發의 心性說은 결국 人間의 善한 본성이 스스로 禮를 行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禮를 行함으로써 궁극적인 天人合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天人合一은 곧 人間 本性에 의하여 禮의 實理를 강조하는데 그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五倫의 禮義·道德으로 귀결될 것이다. 人間이 本性에 의하여 예의·도덕을 자율적으로 실현 할 때는 단순한 倫理意識을 넘어서 理의 本有性을 역설하는 理發論의 心性說에서意義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16C의 儒學은 단순한 어떤 德目에 의한 社會規律을 定하기 보다 士林精神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학문으로서 理論에 의한合理化를 추구하고 退溪·栗谷에 의해서 性理學의 正統에 해당하는 理氣哲學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하겠다.

2. 理氣哲學과 敬思想

退溪는 43歳 때(中宗 38年) 朱子大全을 接하면서부터 道學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고, 平生의 사업으로 삼게 되었다.

그는 孔子에서 朱子까지 이어져 오는 聖賢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믿었고 언제나 같은 길을 가고자 힘쓴 사람의 하나다. 그래서 文科에 급제한 후 벼슬살이를 하다가도 身病, 老衰, 재농부족 등으로 辭職疏를 번번히 내고는 고향(陶山)으로 돌아가 自然에 과물혀 學問을 계을리 하지 않고 항상 人生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활 태도는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士禍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세상을 조용하게 살고 自己의 본심대로 살면서 自然의 기쁨을 맛보고 道義의 근원을 찾아 기뻐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자기는 본래 「山野의 기질」¹⁵⁾이라 하면서도 山林에 묻혀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14) 退溪集, 卷三十五, 答 李宏仲門目

15) 「和陶集飲酒 二十首」其五, 「我本山野質」

바람과 티끌이 뒤덮인 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본심인 本然之性을 버리고 氣質之性에 매여서 살았다는 데 대한 스스로의 비판에서 中年以後에는 가능한 본연지성을 회복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을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아아, 나는 불행히도 늙게 먼 시골에 태어나서,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이 없으면서도 山林 사이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 알았었다. 중년에 들어 망령 되게 세상 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엎는 속에서 여터 해를 보내며 나그네 생활을 하였다.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뻔 했다. 그 뒤에 나이는 더욱 들어 늙고 병은 더욱 깊어지며 처세는 더욱 곤란해 지고 보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나는 부득이 세상을 벼려야만 했다. 그래서 비로소 짐승우리와 새조롱에서 벗어나 전월에 몸을 던지니 앞에서 말한 산림의 즐거움이 뜻밖에 내 앞에 닥친다. 그러므로 내가 묵은 病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궁색스러운 늙은 시절을 편안히 할 곳은 여기를 벼리고 어디서 구할 것인가」¹⁶⁾

자연을 즐기고 또 道義를 즐거워하면서 心性을 기르는 길은 곧 本然之性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연지성은 순수한 精神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로서 道心을 의미하며 이와는 다른 기질지성은 身體的 욕구에 바탕을 두는 物質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로서 人心을 의미하고 있다.

理·氣哲學에서도 앞의 것을 理의 源頭處로 보고 純善無惡한 것이라 하였으며 뒤의 것은 形氣에서 發하고 있으므로 人心이 善하게 되고 惡하게도 된다는 것이다.

理氣哲學은 四端七情論과 함께 朝鮮時代의主流의 위치를 차지하며 理·氣·心性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理와 氣는 이미 正統의 程朱學의 宇宙論에서 나와서 두 中心 개념이 博學, 審問, 慎思, 明辨을 通하여 은고지신 하려는 退溪의 學的 태도에 의하여 새로운 면모를 찾게 된 것이다.

退溪는 理와 氣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라고 보고 있다.

理와 氣는 다른 것이면서도 氣를 떠나서 理만 있을 수는 없고 理를 떠나서 氣만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16) 「陶山 雜詠記」:「嗚呼 余之不幸 晚生遐裔 樸陋無聞 而顧於山林之間 凤知有可樂也 中年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年益老 痘益深行 益蹶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 豔幽憂而晏然於窮老之境者 舍是將何求矣」

理란 원래 모든 變化의 「所以然」 즉,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다. 사물과 관련 있는 모든 法則을 일 반화하여 「理」로서 나타낸다. 그래서 理는 모든 理致, 原理, 道理의 뜻으로 쓰이며 眞理의 해석으로도 통할 수 있다. 退溪는 이 「理」는 「氣」와 함께 現象事物을 이룬다(理氣合而命物)고 한다¹⁷⁾

氣는 사물의 「質」을 이루는 것(氣以成質)이다.¹⁸⁾ 여기서 氣質이라는 말이 형성되었으며 이 氣는 事物의 質料를 뜻하는 것으로 「陰陽」이 氣의 구체적인例가 된다. 그래서 理는 氣와 함께 서로 대조되어 理는 事物의 形相 또는 本質과 같은 뜻이다.

理의 특성은 물론 「形而上學」¹⁹⁾이며 직접 감각되지 않는 추상적인 성질로서 純善하고 有善無惡하며 貴한 것이라 한다.

여기에 對해 氣의 특성은 「形而下學」²⁰⁾이며 직접 감각되고 경험할 수 있는 성질로서 生滅하고 有爲, 有欲하다고 退溪는 말하였다. 그런데 理와 氣는 사실상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在物上看 則二物渙淪 不可分開 合在一處」²¹⁾

理와 氣는 실제로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理와 氣란 사물을 이루는 것일뿐, 개별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사물은 아니다. 이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現象的인 모든 것이 理와 氣로 이루어 진다는 점으로 人間의 意識現象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退溪는 人間의 마음(心)도 理와 氣로 되었다고 한다.

「蓋合理氣 統性情者 心也」²²⁾

17) 退溪集 第三十五卷 答李宏仲

18) 退溪集 第十三卷 答李達 李天機

19) 退溪集 第三十五卷「答李宏仲」： 무릇 貌象과 形氣가 있어서, 천지사방(六合)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모두 器요, 거기에 갖춘 바의 理가 곧 道다. 道는 器를 떠나지 않으며 그것의 형용과 그림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形이상이라 한다. (凡有貌象形氣而盈於六合之內者，皆器也，而其所具之理，即道也，道不離器，以其無形影可指故，謂之形而上也)

20) 위의 책, 같은 곳 : 器는 道를 떠나지 않으나 그것의 형용이나 형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形이하다(器不離道，以其有形象可言故，謂之形而下也)

21) 위의 책, 같은 곳 인용

22) 退溪集 第二十八卷 答鄭子中講目

이때 理와 氣는 理性과 感性으로 다시 四端(惻隱, 羞惡, 辭讓, 是非)과 七情(喜·怒·哀·懼·愛·惡·慾)으로 區分되고 있다. 四端은 仁·義·禮·智의 端緒가 되며 性을 가르킨다. 七情은 人間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情을 총칭한 것이다. 이를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면서 전자는 일반성, 보편성을, 후자는 구체성, 개별성으로 나누고 있다.²³⁾

그리고 四端과 함께 本然之性을 드러내는 情은 곧 道心이다. 그것은 天理를 나타내는 마음이며 精一의 상태에서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精一은 意識의 집중통일을 가르키는 것으로 敬의 태도를 말한다²⁴⁾ 이 敬은 退溪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로서 항상 人欲을 멀리 하고 天理를 따르고자 노력하였으며 敬이 一心의 主宰로서 精一, 主一의 상태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退溪의 「敬」 사상은 멀리 孔孟의 儒學思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敬은 침된 主體이며 自己自身을 가능하면서 동시에 진리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 한다.

退溪는 사람의 다음을 두 가지 근원에서 온다고 보고 하나는 身體에서 오는 것으로 人心이라 하고, 하나는 순수한 精神으로서 道心으로 나누고 있다. 人心과 道心은 원래 書經에서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는 文句에서 연관하는 것으로 敬思想과 매우 밀접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退溪는

「人心, 七精是也, 道心, 四端是也」²⁵⁾

라 하여 人心은 七精과 같고 道心은 四端과 같다는 것은 七精은 感情的인 것으로 보아 形氣에서 오는 氣質之性이며 四端의 純善한 情은 仁義禮智와 같은 人間의 本性에서 오는 本然之性으로 論하고 있다.

「불쌍해 하고, 부끄러워 하고, 양보하고,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은 어디서 발하는가 하면 仁·義·禮·智의 性에서 發하는 것이고, 喜·怒·哀·懼·愛·惡·欲은 어디에서 發하는가 하면 外物이 사람의 形氣에 접촉되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옴

23) 李相殷, 「退溪의 學問과 思想」, p.112, 退溪學研究(서울:退溪先生 四百周年 紀念事業會 1972)

24) 退溪集 筵子 第七卷「進聖學十圖箇 大學經」「敬若何以用力耶? 朱子曰 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 常以整齊嚴肅言之, 門人謝氏說, 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

25) 退溪集, 第三十六卷 答李宏仲問目

직여 境에 연해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四端의 發함을 孟子가 일찍 마음이라 말하였으즉, 마음은 理와 氣의 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리켜 말한 바와 같이 理를 主로 합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인·의·에·지의 성이 순수하게 마음 가운데에 있으므로 四者(촉은, 수오, 양보, 시비)는 그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七情의 發은 程子가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에 動한 것이다’하고 朱子는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 하였는 즉 七情은 理氣를 겸한 것이다.²⁶⁾

거듭 말해서 人心은 本來 善한 것이나 中庸에서 벗어나면 人欲이 되기 쉽고 이것이 惡이 된다는 것이다. 理와 氣, 本然과 氣質을 존중한다면 人欲을 天理라고 하는 폐단에 빠지게 되므로 退溪는 天理를 높이고 人欲을 경계하지마는, 마음이 主宰가 되어 살핌으로써 人欲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心은 身의 主宰요, 敬은 心의 主宰라 하고 있다.

「理氣를 겸하고 성정으로 통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데 性發爲情하는 지음에一心의 幾微와 만가지 변화의 極要와 善惡이 由分하는 것이니 학자가 능히 敬을 지님에 한가지로 하여 天理와 人欲에 어울지 아니하고 未發함에 삼가하여 存養의 功히 긴고 已發에 살핌의 習이 熟하여 真積力久하여 마지 않으면 이른 바 精一執中의 聖學과 존체응용의 心法이 모두 밖에서 求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다.²⁷⁾

人間의 本性에서 유래하는 道心은 즉 四端을 확충하고, 人間의 身體에서 연유하여 生하는 人心, 즉 七情을 조절하고 한계를 주어 人欲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主體로서 敬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의 敬이 강조되는 것은 순수한 정신적 가치(道心四端)와 신체적인 세속적 가치가 배제되며 하나의 온전한 人格으로 형성시켜 주는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退溪는 敬에 대하여 일평생 관심을 갖고 있었다.

26) 退溪集 第十六卷「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惻隱羞惡辭讓是非，何從而發乎，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喜怒哀懼愛惡欲，何從而發乎，外物觸其形而動於中緣境而出焉爾。四端之發，孟子旣謂之心，則心固理氣之合也。仁義禮智之性粹然在中而四者其端緒也。七情之發程子謂之動於中，朱子謂之各有修當，則固亦兼理氣也。」

27) 退溪集 箕子「進聖學圖箇：心統性情圖說」「要之兼理氣統性情者也心，而性發爲情之際，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善惡之所由分也，學者誠能一於持敬，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真積力久而不已焉，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3. 退溪歌辭와 居敬窮理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退溪의 학문은 朱子學을 존중하면서 儒學으로 사회적 윤리 의식을 일깨우고 天常을 살피는 道로서 그 기반을 구축하고자 理氣哲學의 바탕에서 敬思想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儒學의目的是 어디까지나 聖人을 본받고 나아가서 聖人이 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실천적이며 체득적이어서 學의 내용이 윤리적인 德目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退溪가 주장하는 유가적 학문 태도는 敬思想을 根幹으로 하는 「居敬窮理」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居敬窮理는 四書 가운데 中庸의 尊德性道問學과 연관 있는 것으로 居敬은 우리 정신세계의 정제되는 상태에 머무는 工夫로서 內的 精神修養을 의미하고 穷理는 事物의 이치를 밝히는 객관적인 理法追求를 도모하는 工夫다.

居敬은 穷理와 대칭되는 것으로서 내적, 정신적 수련에 본뜻이 있다. 그러나 궁리와 항상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居敬과 穷理는 行과 知의 관계로서 居敬은 穷理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居敬은 儒家學의 공부에 절대시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대체로 사람이 학문을 할에 있어서 有事無事와 有意無意를 박론하고 오직 敬으로서 위주해야 한다」²⁸⁾

이러한 敬思想도 儒家의 自然觀에서 그 基底를 이루고 있기에 退溪의 文學觀도 자연 질서와의 일치에서 表現하고자 노력함이 그의 도산 12곡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결코 추상적인 자연파의 조화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물아일치의 경지에서 자연파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마음이 자연으로 浸入하면서 自我의 확대를 그리고자 했고 宇宙에 對한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居敬窮理로 動靜을 관통하고 諸般事用工에 근본으로 삼았다. 退溪의 이러한 태도는 詩보다 그가 지은 몇 편의 歌辭에서 엿볼 수 있기에 본 고찰에서는 穷理(理法追求面)보다 居敬(內的精神修養面)에 적용하여 歌辭作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居敬의 敬은 본래 宋學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되어 많은 설명이 있어 왔다. 程子는 主一無適이라고 하여 整齊嚴肅을 말하였으며 積久漸熟으로 자기가 몸소 체험하여 物에 對한 妙味를 깊이 느끼게 하였던 것 같다. 退溪도

28) 退溪集「答金惇敘書中」：「大抵人之爲學，勿論有事無事 有意無意 唯當敬以爲主」

敬을 지니는 방법으로 整齊嚴肅을 제일 중요시하였으며, 主一의 하나라는 것은 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敬으로 일관하면 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誠 자체는 聖人의 경지이기에 그는 「在天曰誠」이요, 「在人曰敬」이라고²⁹⁾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敬이며 이것에 의하여 참의 경지로 나간다는 것이다.

III. 退溪歌辭와 居敬窮理

1. 整齊嚴肅·孔夫子闕里歌

孔夫子闕里歌는 勸善指路歌 또는 道德歌라 부르기도 하는데 총 70句로 된 歌辭³⁰⁾ 이 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儒家思想의 윤리관으로 一貫하였으며 오직 실천공행으로써 安分과 知命으로 참다운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性理學者의 전형적인 道德歌辭다.

유학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表現의 기교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구조가 아니고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유교적 理性으로 일관되며³¹⁾ 모든 작품 내용은 대부분이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교적 윤리 도덕은 유교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그를 生活을 표현하는 文學에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朝鮮朝 양반들의 작품 속에 道德의 향기가 가득 차 있다.

앞의 理·氣哲學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사람은 天地의 이기를 낟아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發하기 전에는 태국이 動靜의 理를 갖추어 아직은 음양의 물로 판별되어 있지 않음과 같이 한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성(性)이 있다는 것이다. 즉 氣가 그 作用을 시작하기에 이르지 못한 채로 理만 있게 된다. 이 理는 원래 惡하지 않고 善한 것이어서 純善無惡하다.

그러나 마음이 일단 發할 때에는 태국이 동정에 의하여 음양의 구별이 생기듯이 마음도 氣가 그 작용을 시작함에 따라 혹은 理를 가리우는 일이 생

29) 退溪集 第十卷「答蘆伊齋」

30) 이 가사는 退溪의 十三世孫인 李中冀 (1849~1885)님 家藏本에서 李家源博士가 發見하여 소개한 한글 필사본이다.

31) 朴喆熙, '時調와 Moral Imagination', p. 4, 國語國文學研究 제 14집(大邱:嶺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72).

겨나서 惡에도 빠지게 된다.

이러한 性理哲學의 學理에 따라 太極五行 三才, 八條目, 三綱領, 卦爻 等의 儒家的 學이 歌辭를 通하여 소개되고 있다.

「文明호 山水間에	魯王의 萬世基라
東山이 主山되고	汶水가 靑龍이라
農山이 白虎되고	泗水가 橫流라
官墻을 노피하고	大家를 이루실제
周公의 늄은 道德	조흔 터 닻가 노코
五行으로 柱礎하고	三才로 기둥 소마
八條目 도리거려	三綱領 大梁 언고
六十四卦 쪼바내야	箇箇 採木 거려 노코
三百八十 四爻數로	冬冬로 撒子 매자
五十土로 알메울려	太極으로 蓋瓦하니
一六水가 北門되고	四九金이 西門이라
日月星辰 窓을 삽고	洛龜河馬 丹青하니
아비도 토흔 집은	이 집 外에 다시잇다」

이같이 性理學問의 세계를 전물에다 비유하여 俗客과 文人們에게 강조하여 萬代의 터를 닦는 倫理 道義의 鄕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孔子의 關理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강조 예찬하였다.

특히 三綱領과 八條目은 大學의 德目이다. 退溪는 「大學圖」에 있어서 大學의 가운데 「明明德」을 體로 하고 「新民」을 用으로 삼은 다음 「止於至善」을 體用의 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明德을 밝히는 것도, 백성을 새롭게 함도, 그의 理想으로 하는 바는 곧 至善에 머무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至善은 中庸과 같이 不偏不倚와 過不及이 없도록 하여 元亨利貞의 四德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四德은 人性에 있어서는 仁·義·禮·智·信의 五常으로 되는데 이 가운데 仁 하나로만 유교적인 윤리의 諸規範을 귀착시킬 수 있으며 仁을 체득한 사람이 聖賢이 될 수 있다.

退溪는 氣가 理를 따르되 그 理를 가리우지 않도록 人間本然의 性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不偏不倚, 즉 中立을 지켜 至善에 머무는 것, 또 仁을 체득하여 성인에 가깝도록 스스로 노력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仁門을 鍔피 열고	義道를 크게 뜻가
禮義文物 가좌 노코	오난 사람 보조하니
宮牆이 鎔흔곳에	누거누거 모현난고
風乎舞雲 詠歸人은	堂上으로 올라가고
陋巷春風 築瓢士는	窒中으로 드러가고
琴張木皮 閔子騫파	子路仲弓 冉有등은
升堂入室 흥다말고	門안의 안잣드라
七十弟子 三千人을	歷歷히 다 알손가」

라 하여 孔子님 집에 모인 제자들을 노래하였다. 곧 仁門과 義道로 닦은 儒家에 曾點, 鳶淵, 琴張, 木皮, 子路, 仲弓, 閔子騫, 冉有 등을 비롯한 七十제자와 三千門徒들이 모였다고 하였으며 이어서孔子집을 찾아 가다가 晦巷에 들어 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朱子의 性理學을 익히고 儒學의 學問을 습득하여 知的인 面(三綱領)과 實踐적인 面(八條目)으로 至善에 머물도록 모든 학습은 熟讀玩味의 태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本然의 性이 氣에 의하여 가리워짐이 없이 至善에 머물고, 氣發상태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태도가 곧 居敬이라 한다. 居敬은 靜中의 工夫요, 未發로 시작되는 만큼 靜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엇보다 정신이 집중통일된 상태요, 이론바 「無適」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整齊嚴肅’ 모든 起居動作을 가볍게 하지 않고 萬事에 조심하고 삼가하는 태도로서 身心이 속연해지고 결과 속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한다.

다면 이제 노력할 것은 마땅히 程夫子의 정체엄숙을 먼저 할 것이니 이를 오래 계속해서 계율리 하지 않으면 이론 바 마음이 하나가 되어 非僻의 于與가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할 것이다.³²⁾

정체엄숙은 心身을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가지는 것이다. 敬이 內的, 精神的 專一을 추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外的 規制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家學의 方法으로 外的 整齊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退溪는 그의 整齊箴에서 이의 실천을 강조함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이 孔夫子關理歌는 전편이 유교 사상으로一贯되었으며 聖賢의 교훈인 仁義 象數와 禮儀 文物

32) 退溪集 第十三卷「答書」中「答李宏仲書」：但今下手用工處 當以程夫子整齊嚴肅爲先，久而不懈則，所謂心便一而無非僻之下者 可驗其不我欺矣。」

에 접약될 수 있다. 이는 作者인 退溪가 性理學者로서 大學과 論語를 取意하여 후진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정체임속하여 사회적 규범에 충실할 것과 처신의 은인자종을 강조하는 것이 본 가사의 근본 의도라 하겠다. 이것이 곧 敬에 나아가는 길의 철경임을 후인들에게 제시하였다고 본다.

2. 主一無適·相杵歌

相杵歌는 방아노래로서 春杵歌라 하기도 하는데 治國安民으로부터 부모공양에 이르기까지 제마다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교훈하는 도덕 가사다.

朝鮮의 양반 시조나 자사는 그 나름대로 문학적 관습이 있다. 특히 退溪와 같은 性理學者들의 문학관이나 창작태도는 거의가 儒家의 입장에서 관습적인 주제를 찾고 있다. 주자학의 신봉자들은 유파의 윤리적 德目으로 삼는 삼강오륜이 宇宙를 불들어 유지하게 해 주는 棟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柱石으로 생각하고 있으니³³⁾ 그들의 생활태도의 本心을 이해하는데 여러 모로 뜻 깊은 암시를 준다고 하겠다. 그래서 人間의 삶 자체가 관념 속의 현실로서 존재하며, 사회 질서가 정연해 지기 위해서도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성현들의 언행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

본가 역시 예의일 수는 없다. 治國安民을 해야 할 군주로부터 부모 봉양할 구女에 이르기까지 각자 할 일에 험색야 함을 몰하는 도덕 가사다.

옛날 董仲舒가 말하기를

「昔主가 마음을 바르게 하면 조정과 백관 나아가 백성을까지 바르게 되고 사방의 멀고 가까운 데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른 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 사이에 간사한 기운이 그 중간에 끼이지 못할 것이나 그러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비·바람까지 때를 맞추어서 모든 부된 물건이 상서롭게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³⁴⁾

고 하였다.

이것은 性理學者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한 나라의 군주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일 것이다.

33) 退溪集「年譜 Ⅱ」:「綱常者扶持宇宙之棟梁，尊安生民之柱石」

34) 암의 책 같은 곳:「人君正心以正朝廷與百官萬民以至於四方遠近莫不一於正而無邪氣于其間，是以陰陽調而風雨時諸福之物」

治國安民은	聖上의	호	일이오
燮理陰陽은	宰相의	호	일이오
承流宣化는	弓伯의	호	일이오
而折廷爭은	臺諫의	호	일이오
折衝禦侮는	將帥의	호	일이오
勸農興學은	守令의	호	일이오
入孝出悌는	선비의	호	일이오
務本力穡은	百姓의	호	일이오
紡績住食은	婦女의	호	일이오
親上死長은	軍士의	호	일이오
우리도 이방하찌하내야	父母供養	호리과	

君主, 宰上, 方伯, 臺諫, 將帥, 守令, 선비, 隅성, 부녀, 軍士, 農夫들까지 제작기 할 일을 잘 하면 天地의 음양과 五行까지 조화가 되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아울러 枠長들은 勸農에 힘을 써서 뒷 사람에게 供養하고 道理를 지킨다면 그때는 安分之足을 누리게 된다.

孔子도 이상적인 국가를 다스릴에는 「君君 臣臣 父父 子子」³⁵⁾라고 정치의 근원을 강조하였듯이 退溪도 이 작품을 통하여 마음을 한 가지 事實에 專一하여 다른 것에 흘어지지 않게 하는 ‘主一無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主一無適은 원래 程伊川의 敬에 對한 해석으로

「敬이란 무엇인가 主一을 이름이다」³⁶⁾
하였다. 退溪도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가지 일에 관하여 익힐 때에는 마땅히 그 일에 專一해서 마치 딴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듯 해서 아침에나 저녁에나 항상 그려해야 하고 오늘에도 내일에도 항상 그려해야 한다」³⁷⁾

主一無適이란 각자 당면한 일에 專心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항상 의 관을 바르게 하고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만정신을 기울이고 다른 데 정신을 보내지 말고 마음을 두 갈래로 내지도 말고 오직 마음을 한 가지로 하면 만가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퇴계는 말하였다.

이에 따른 것을 ‘持敬’이라 하고 지경하면 動하고 靜하나 마음에 어짐없

35) 論語 顏淵十一

36) 退溪集 第十卷「敬者，何主一之謂也。」

37) 退溪集 第七卷「箇子」：「就一事而習則當專一於此事，而如不知有他事 朝焉夕焉有常，今日明日而相續。」

이 결과 속이一致하게 되는데 만약 마음에 틈이 생기면 三綱이 멀하고 九法이 폐해진다고 退溪는 그의 敬齊箴에서 밝히고 있다.³⁸⁾ 이상과 같이 相杵歌가 독자에게 주는 밑바탕의 흐름은 곧 敬思想에서 나온 主一無適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思想의 배경하에 退溪가 평소 염원하는 爲國愛民思想이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고 본다.

3. 積久漸熟·孝友歌

『李退溪先生 孝友歌』라는 표제로 傳하는 이 작품은 94行 188句의 道德歌辭다. 本歌는 처음부터 끝까지 「孝」에 관한 내용으로 一貫되어 있어 「孝」라는 것이 人倫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잠시도 人倫에서는 떠날 수 없는 일로서 어찌 보아서는 음상 및 사회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윤리관계를 존중하며 실천해 가는 생활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道德敎訓이 주제로 된 文學作品은 歌辭文學보다 時調文學이 士大夫 사이에 더 성행되었고, 유교적인 도덕생활이 강조되어 왔다. 원래 道德은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바른 길로서 人倫五常의 道를 말하는 것이다. 儒教의 理性으로 하시 저상과체는 忠孝의 실천이다. 특히 하늘과 같이 끝 없는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不孝者는 禽獸라고 지적하였다.

너희를 질려내여 모슬일 흘라흐리
人間의 흘 둘이야 수없이 만타마즈
다문 일 다봉하고 孝義나 흐여스라
孝友 끗 못호오면 禽獸의 갖가오리
너희 끗 흐야흐련 仔細히 이르리다

이같은 내용은 士大夫 시조에서 더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³⁹⁾ 또 사람으로 이 主上에 태어나서 부모를 봉양하고 관직을 엄어 忠을 실천함은 本 孝의 최고의 경지이니, 「立身揚名 以顯父母 孝之終」⁴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忠孝는 別個의 것이 아니고 同一物의 서로 다른 面이다. 忠孝하면 人

38) 앞의 책 같은 곳『敬齊箴』:「從事於斯是曰持敬, 動靜弗違表裏交正, 須臾有間私欲萬端, 不火而熱不冰而寒, 豪釐有差天壤易處, 三綱既論九法亦敎」

39) 朴仁老는 그의 「五倫歌」에서 「天地間萬物之中에 사물이 最貴하니／最貴호하는 五倫이 아니운가／사람이 五倫을 모루면 不遠禽獸우리라」하였다.

40) 尹善道의 「遺稿譜」중에서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아란마는／님군 向호 뜰

『間이요, 不忠孝하면 금수니, 忠孝하기 기약하면 동용문을 통과하기 위해 十載遑遑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¹⁾는 관념은 朝鮮의 性理學者 사이에서는 피할 수 없는 當代의 상황이었다 하겠다. 退溪도 德目上으로 孝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것이며 일상 생활 속에 참된 도리를 인정하고 어디까지나 부모로부터의 訓育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손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여 너무 준厉하게 채망만을 하지 않고 찬찬히 타이르기를 거듭하여 스스로 느끼며 깨치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종들에게도 한번도 노하고 꾸짖는 일이 없었으며 가정 안팎이 온화하면서도 엄숙한 태도로써 불쾌한 낫이나 소리를 내는 일이 없으니 만사는 스스로 잘 다스려졌다.」⁴²⁾

이같이 退溪는 자손을 사랑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親愛하지 않고 교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孝經」이나 「小學」을 읽도록 하여 스스로 깨치고 순서에 따르도록 하였다. 「孝經」의 공부도 退溪 스스로 자손을 가르쳐 學에 들어가는 門路로 삼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버이를 섬기는 참된 마음이 學을 통하여 오래 쌓아지고 점차 濃熟해지는, 「積久漸熟」⁴³⁾의 경지에 이르며 하늘까지 섬길 수 있는 도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밝히게 한다.」⁴⁴⁾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은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심기기에 게으르지 아니한데 비유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을 섬기는 도리는 마땅히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도리와 같이 한다는 것을 남김 없이 말한 것이다. 학자로서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서 더욱 그것을 체득하여 절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도리는 실로

도 하늘이 삼겨시니／眞實로 님군을 니즈면 기 不孝』가 녀기과」

41) 退溪門人 權好文의 「閒居十八曲」 중에서 「平生에 願인 누니 다운 忠孝분이로다／이 두일 말면 禽獸나 다라리야／모음에 ھ고저 ھ야 十載遑遑 ھ노라」

42) 退溪集言行錄三「居家」：「子孫有過 則不爲峻責，警誨諄復，俾自感悟 謹婢僕亦末嘗遽加嗔罵，閨門內外，恰渝肅穆 不動聲色而萬事自理焉」

43) 退溪는 「工夫만 부단히 쌓으면 그 성공은 필연적이라 하고 애써 노력하기를 오래 계속하고 그치지 않으면 어찌 성공하지 못한 것을 근심 하겠는가？」(刻苦用功久而不廢 何患無成(答李宏仲書)), 또 이어서 「漸進의인 노려 쌓아 純熟하려면 그 효과를 가까운 시일에 구하지 말고, 얻지 않고는 그만 두지 않는 자세, 즉 종々 사업으로 살아야 한다」(積漸純熟 未可責效於時月弗得弗措, 直以爲終身事業)고 하였다. (答李叔獻書中)

44) 退溪集「西銘考 證講義」：「因事親之誠以明事天之道」

이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⁴⁵⁾

이의 두 인용은 다시 말해서 ‘어진 사람은 어버이 섬기기를 하늘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 하늘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仁人之事親也如事天事天如事親<禮記>)라고 하는 말과 같이 退溪의 인생관, 세계관이 孝를 밀반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居敬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退溪의 居敬은 靜中의 공부요, 학습에 있어서는 窮理와 對하는 것이다. 이靜은 運動의 기본이 되는 靜이고 이 靜을 求하여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萬用의 근본을 主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 때의 居敬은 未發의 태도인 것 같지만 動靜을 관통하여 학습과 훈육의 근본이 될 敬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으므로 致知로서의 窮理와의 대립을 넘어 모든 일에 있어 실천의 기본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孝를 기본으로 하는 力行의 조목이 여럿이 있으나 心意의 작용에 치중하여 未發之時의 태도로서 敬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孝養을 헌운 후의	友愛를 겸하여라
同生兄弟는	父母로 되어스니
얼굴은 는호이니	氣血은 혼가지라
호집의 삼거나서	호집 며고 길너나서
分門割戶 헤야	直系를 츄론 후의
.....略.....	
兄弟는 羽翼이라	羽翼업시 어덕가며
兄弟는 手足이라	手足업시 어두가리
平常히 이신체는	朋友만치 못내겨도
患難을 맞나오면	兄弟맞게 쪘잇누냐
우리는 同生의계	友愛는 뜻하여도
平生의 미는 情이	싸ه업시 사쟈호야
兄의 탑 는화 먹고	아의 웃 떠썩 넘고
百年 和樂으로	盡長토류 소쟈두니
半夜 傷風의	慈兄이 부려지니
雲間의 외길어기	여티로 가잔 만고

45) 退溪集 言行錄「告君陳誠」：「存心養性爲匪懈，以比子之事親不懈也，此極言事天之道，當如孝子之事親，不但爲學者，所當體念理會，在人君受用，尤爲親切，人君事天之道，實不外此矣！」

風雨對狀의

對面時를 성자하니

風水營農의

痛恨이 非常하다.」

이 가사는 父母께 孝養하온 뒤에 兄弟間의 友愛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退溪 자신의 生活 일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앞서 소개한 도덕가사와 함께 본 가사 역시 본연지성에 근거를 두고 “仁孝”라는 적목을 내세워 세계를 자아라 하여 하나의 교육적 성격⁴⁶⁾을 띠우고 있다. 兄弟를 羽翼과 手足으로 비유시켜 ‘얼굴은 눈호이나 氣血은 혼가지’라 하여 兄弟一身을 강조한 바와 같이 退溪 자신의 孝友 또한 지극하였다.

「간혹 찬방공이 집으로 오면, 문밖에까지 나가 맞아 들어면서 한 자리에 차례로 앉으며 부드럽고 조심하는 모양이 밖으로 풍기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孝悌의 마음이 생기게 하였다.」⁴⁷⁾

「하루는 제자들에게 “옛날 사람은兄을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여 드나들 때는 부축해 드리고, 거처에서 봉양하는 데는 자제의 도리를 다 했는데, 이제 나는 오직 한 형(찬방공)이 계시는데 자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하였다.」⁴⁸⁾

退溪는 은화하고도 어질며, 공손하고도 삼가며, 단정하고도 자세하고, 조용하고도 무거운 품이 있어 바라보면 의젓하여 공경할 만한 거동을 평소에 행하고 있음을 위의 인용에서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뿐인兄(찬방공)을 부모 이상으로 공경히 하여 평생도록 孝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의 제자들이 까지 어버이를 섬기는 올바른 도를 강조하였다. 退溪는 한갓 허례로서 억지로 내 부형에게 孝悌의 도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본성에서 자연 우러나와 내 어버이를 높이고 내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남의 어버이와 어른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공경하는 禮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뜻은 退溪의 이 원론적 主理論으로 대표되는 道學的인 사상으로서 사람은 마땅히 氣質之性에 구애되지 않고 本然之性을 실현해야 하고, 기질지성에 근거를 둔 七情에

46) 趙東一,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설정’, p. 171, 우리 문학과 만남, (서울:弘盛社, 1978)

47) 退溪集 言行錄〈居家〉:「察訪公, 若至宅, 則出門奉迎, 必序坐一席, 怡愉恭謹之容, 瞥盞於外, 望之令人生孝悌之心」

48) 위의 책, 같은 곳 「一語及門生曰, 古人事兄如事嚴父, 出入扶持 居處奉養 以盡子弟之道, 今我只有一兄, 而未得盡子弟之道, 可歎」

사로잡히지 말고 본연지성에 근거를 둔 四端을 실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 디일 것이다. 퇴계가 末年에 심혈을 기울여 쓴 무진육조소의 1조목에 仁孝·에 對한 부분을 보면 확신해 진다.

「孝는 백 가지 형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한 가지 형식이라도 어그러짐이 있으 면 순수한 孝가 될 수 없는 것이며 仁은 만가지 善에 으뜸이 되는 것이니 한 가지 善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仁은 온전한 仁이 될 수 없는 것이옵니다.」⁴⁹⁾

「부모가 그 아들 사랑하는 것을 慈라 이르고, 아들이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孝라 이르나이다. 孝와 慈의 도리는 하늘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선의 으뜸 이니 그 은혜가 지극히 깊고, 그 윤리가 지극히 무겁고, 그 정이 가장 간절한 것 이옵니다.」⁵⁰⁾

이같이 選溪는 孝와 慈는 하늘의 본성(天命之性)에서 나온 것이기에 지극 히 은혜가 깊은 것이요, 지극히 무거운 윤리로 말미암아 가장 간절한 情을 행하되 다당히 극진히 다못함이 없어야 하겠거늘, 간혹 효도가 어그러짐이 있고, 자애하는 천성이 또한 없어지는 데에 이르러, 심한 자는 지극히 가까 운 천척이 변해서 이리떼가 되어 사랑하지 못하니, 보통 사람들도 진실로 이것을 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였다. 仁孝를 주장하는 性理學의 사상은 곧 순수한 本然 가운데 있는 道心(四端)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理想 을 의미한다. 人間의 빼물지 않은 本性의 마음은 물결이 일지 않은 물과 같 이 많아 仁愛로운 마음이 일어나 닉힐이 없고 孝順의 행실이 순수하여 남에 게 미치는 헐은 끌이 없는 것으로 지극히 순수한 情일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情, 곧 道心으로서 外物이 눈을 가리고 愛憎의 혼들림과 유혹에 의하여 본성이 바뀌지 않도록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 道心(四端)과 人心(七情)의 二元性을 성리학에서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면서 選溪는 이의 혼동을 특별히 경계하였다. 이러한 道心과 人心의 혼동을 막기 위해 해서는 날이 가고 달이 쌓이도록 학문하는 태도가 예사로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求道者의 자세로서 공부하면 마침내 확고부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選溪는

「自信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 참됨을 쌓고 工夫를 오래 하게 되면 자연히 心과

49) 退溪集 疏(二)〈戊辰六條疏〉:「雖然孝爲百行之源, 一行有虧則孝不得爲純孝矣, 仁爲萬善之長, 一善不備則仁不得爲全仁矣。」

50) 위의 책 같은 곳:「臣聞父母之愛其子爲慈, 子之善事親爲孝, 孝慈之道出於天性, 而道於衆善, 其恩至深其倫至重, 其情最切。」

理가 서로 융합되어 언제 融合貫通되었는가 알지 못하게 되며 習과 事가 서로 악속해져서 習차 그 견이 순탄하고 平安해 겸을 보게 될 것이다.⁵¹⁾

고 하였다. 「積久」가 의미하듯 오래오래 학습을 쌓아서 마침내 純熟한 지경에 이르면 자연히 心과 理가 하나가 되어 主客觀의 분화를 넘어서 兼思實貫動靜하는 敬의 道心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積久漸熟은 유가교육의 학문적 태도이며 無形한 정신이 하나의 힘을 이루게 하여 外物의 動靜을 살피면서 外物의 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때의 마음은 一身의 주제인데 그 마음의 주체가 敬이 되고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敬字一心之主宰而萬事之本根也—(大學圖)으로 敬은 道에 들어가는 문이요, 최후의 도달은 誠이며, 그 결과 動靜을 관통해서 諸般事用工에 적중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敬은 곧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하는 性理思想이며 이를 실천하고자 힘쓰는 退溪의 本性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孝友歌를 통해서 退溪의 사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고, 또 人間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와 자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과 積久漸熟으로 理를 인식하고 孝의 실천에 조금도 틈이 없는 退溪의 道心을 감지할 수 있었다.

IV. 結論

退溪는 理·氣哲學으로 朝鮮士大夫 사이에 출중하게 立身을 한 사람이며 그는 나아가서 정치에 참여할 때는 항상 국가적인 이념을 확립하고 王道政治의 이상을 제시하기에 서슴치 않았으며 한편 물러나서는 心性을 닦고 道學을 펴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退溪는 物我一體를 경험하면서 마음을 情에다 맡기지 않고 性을 기르는 것을 文學의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文學은 경륜을 펴는 도구이며, 자연에 묻혀 자연을 감상하면서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며 儒學을 펴는 것으로 만족하여 끝내 영 달의 주단으로 삼지는 않았다.

朝鮮의 儒學思想은 三綱五倫이며, 禮를 중상하면서 윤리규범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곧 社會秩序와 人倫道德의 궁극적 현실인 王道政治를 目的으

51) 退溪集 第七卷「尤當自信而益勵 至於積真之多用力之久，自然心與理相涵，而不覽其融會貫通，習與事相熟而漸見其坦潔安履」

로 한다. 이러한 유학사상에서 退溪는 「敬」사상을 찾았고, 이 사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늠하고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지침으로 삼았다. 敬은 마음의 主宰로서, 人間의 마음에는 身體에서 오는 人心과 순수한 精神에서 오는 道心으로 나누었는데, 人心은 七情과 같아 中庸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人心이 중용에서 이탈하면 人欲이 되는데, 곧 惡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욕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主體로서 退溪는 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敬은 곧 退溪의 主된 사상으로서 지금까지 理氣哲學 속에서 살펴 보았고 그의 歌辭作品을 通하여 整齊嚴肅, 主一無適, 積久漸熟과 가사와 연관지어 考察하여 보았다. 結局 퇴계의 「敬」은 2차적인 정신적 가치(道心, 匹端)를 확충하면서 人間의 신체적 욕구에 한계를 주고 조절함으로써 中庸을 지키나가도록 (人心과 道心이 알맞게 실현 되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退溪의 성리학을 理와 敬으로 본다면 理는 인식이고, 敬은 실천으로 주축이 되어 一平生 兼思學貫動靜하는 道의 生活을 하였다고 본다. 유교의 윤리의식과 함께 敬思想이 文學作品에까지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士大夫 및 식자층에서 제대로 行해지지 않은 증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당시 정치의 혼란을 가져왔던 土禍 때문일 것이다. 이 사화로 인하여 성리학은 당파 싸움으로 빈지게 되면서 현실도피적 경향으로 몰아넣어 은둔사상의 문학을 낳게 하였다고 본다.

끝으로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유교의 윤리도덕이 문학작품에 강조되었다는 것은 결코 양반층이나 일반 서민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주에게도 적용시켜 이상적인 왕도정치가 되도록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民本, 為民의 仁政德治를 가져 오도록 하는 공자사상의 실천적 윤리도덕이 底意가 되었기 때문에 退溪도 일평생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본다.